

AUTHOR 이성호

TITLE 바른 교회, 바르게 세우기: 직분에 대한 칼빈의
이해

IN 신학정론

vol. 52 (5, 2009): 51-78

해방 후 권징이 사라진 우리 한국 교회는 진리 수호를 위해 하루 속히 권징의 회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진리를 모든 오류에서 지키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교회라면, 권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난관이나 반대 세력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칼빈에게서 배워야 한다. 칼빈이 강조한 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마침내 교회를 해체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³³⁾

[신학정론 2009.5. 제27권1호 pp.51-78]

바른 교회, ¹⁾ 바르게 세우기: 적분에 대한 칼빈의 이해

이 성 호

[조직신학 · 전임강사]

서론

칼빈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개혁자였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없애고 새로운 교회를 창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 인간의 전통으로 오염된 거짓 교훈을 정화시켜 순수한 교리를 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야말로 교회를 개혁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으며,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칼빈은 평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을 썼고 신학교에서는 강의에 힘을 쏟았고, 교회

1) 칼빈의 신학에서 바른 교회란 거짓교회의 구분되는 참 교회를 가리킨다. 바르게 참 교회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학정론에는 참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생각되어 '바른 교회'를 제목 안에 넣었다.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다.²⁾

순전한 말씀의 선포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다. 아무리 올바른 교리가 확립되어 있는 참 교회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혹은 거짓 교회인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나약한 교회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는 교회의 표지와 관련되고 후자는 교회 정치와 관련된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역자들이 질서 있게 다스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정치의 핵심적인 과제는 교회의 직분자, 특히 말씀의 봉사자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³⁾ 이런 의미에서 칼빈이 교회의 개혁자이며 동시에 직분의 개혁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바른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참된 개혁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교회 정치를 거부한 제네바 교회를 칼빈이 떠나, 그 당시 위대한 개혁파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부셴(Martin Bucer)가 성경적 직분에 근거하여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스트라스부르 교회로 옮겼다는 사실, 그리고 3년 뒤 1541년에 제네바교회로부터 다시 청빙을 받았을 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예”를 따라 권징을 실시하도록 엄중하게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⁴⁾ 칼빈에게 있어서, 바른 신학도 중요하지만 바른 교회

2) 기독교강요가 칼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임에는 불림없지만, 그의 신학을 전부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신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강요 뿐만이 아니라 주석, 설교 등을 참고해야 한다. 이것은 칼빈의 직분론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기독교강요 마지막 책 4권은 은혜의 외적 수단을 다루는데, 크게 1) 교회론(좁은 의미에서 교회론, 즉 교회 자체가 대한 논리), 2) 성체, 그리고 3) 시민정부의 순으로 나누고, 교회론은 또 다시 교회의 표지, 교회 정치, 교회의 권세의 순으로 구분된다. 분량에 있어서 제4권은 기독교강요의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며, 상당부분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할애되고 있음을 볼 때, 기독교강요는 변증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하겠다.

4)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III (Grand Rapids: Berdmans, 1995; reprint), p. 475. 이때 칼빈이 작성하고 제네바 시 총회에서 통과된 교회법

[정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였다.

직분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세세하게 다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글은 직분에 대하여 칼빈이 가지고 있던 원리적인 이슈들을 선택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칼빈이 다른 신학적 전통,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와 어떻게 구분되며 그가 가진 입장이 종교개혁이라는 맥락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역사적 배경: 제사(sacrifice)에서 예배(worship)로

오늘날 직분에 대한 칼빈의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쉽기도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신자들은 칼빈의 글을 읽으면 아마도 그의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칼빈이 주장한 목사와 장로의 구분, 즉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입관을 갖고 칼빈을 읽게 되면, 칼빈이 왜 직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칼빈의 직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16세기, 공간적으로는 스위스 제네바라는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칼빈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가 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종교개혁이 직분에 있어서 이런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에피스코포스(감독, ἐπίσκοπος)를 목사와 장로라는 다른 이름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즉, 이름만

(Ecclesiastical Ordinances)은 이후 모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위한 교회 정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다르다 뿐이지 실제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았다. 칼빈은 감독과 장로를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직분으로 보는 것은 직분 교리에 있어서 타락이라고 보았다.⁵⁾ 헬리어 에피스코포스는 그 어원상 “위에서 보는 자”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어떻게 돌보는가이다. 칼빈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보았다.

로마교회는 이 직분을 일반 성도들을 감독하는 직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목사들을 감독하는 직분, 목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직분, 즉 오늘날 고위 성직자인 주교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칼빈은 다른 종교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목사, 장로, 감독은 모두 다 한 직분을 가리킨다고 보았다.⁶⁾

칼빈에게 있어서, 종종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목사는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데,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역자, 즉 설교자이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목사를 설교자로 이해한 칼빈파는 달리, 로마 가톨릭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목사를 설교자로 이해한 칼빈파는 달리,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목사(장로, 혹은 감독)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제이다. 심지어 집사도 사제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사제라고 할 수 있다. 로마교에 있어서 모든 직분은 제사로 이해되는 미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구약적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주교는 대제사장, 사제는 제사장, 집사는 레위인에 종종 비유되었다. 따라서 사제인 목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⁷⁾ 물론 사제들이 미사를

5) Calvin, *Commentary upon the Acts of Apostles*, (20장 28절), p. 255. 칼빈의 주석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1933년 베이커(Baker) 출판사가 22권으로 편집 및 재편집한 칼빈의 주석 전집을 참고하였다. 한 권이 여러 권을 단순히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페이지가 여러 군데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장과 절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6) Calvin, *Sermos on Timothy and Titus* (The Banner of Truth and Trust: Edinburgh, 1983; 1597년 페시밀리 제판), p. 237, a.

7) J. L. Ainslie, *The Doctrines of Ministerial Order in Reformed Churches of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p. 34.

주권하는 일만 하지는 않았지만, 미사는 사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결과 다른 지역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강조한 설교 사역들은 주변적인 일로 밀려 나가나 아예 무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목사(감독)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설교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처럼 제사에 수종 드는 제사장적 직분은 실제로 이방 종교의 관습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⁸⁾

이 점에서 우리는 직분의 관점에서 로마교의 미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찬에 있어서 로마교와 개혁 진영의 가장 큰 차이는 성찬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했느냐이다. 로마교는 그것을 제사(sacrifice)로 이해하였고, 개혁 진영은 식사(supper)로 이해하였다.⁹⁾ 따라서 성찬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다. 그 결과, 성찬을 집행하는 직분지는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삼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주된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배분하는 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목사가 사제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은 목사가 사제라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사제라고 주장하면서 사제직의 제한성을 철폐하고 사제직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목사도 사제이고, 평신도도 똑같이 사제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직자/평신도라는 이분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칼빈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권위 있는 연구자 가노츠(Alexander Ganoczy)가 정확하게 지적하였듯이 칼빈은 평신도라는 말은 거부하였지만 성직자(clergy)라는 개념은 받아들였다.¹⁰⁾

8) Calvin, *Commentary upon the Acts of Apostles*, (13장 2절), pp. 498-499.

9) 성찬에 대한 개혁파와 로마교의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고계수, 『세례와 성찬』 (서울: 성와출판사, 2007), pp. 49-59.

10) Alexander Ganoczy, *The Young Calvin*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87), p. 217. 칼빈은 성직자(clergy)와 일반인(people)의 구분을 편의적으로 받아들

간단히 요약하면, 종교개혁은 예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사 중심의 제사에서 살고 중심의 예배로 바뀐 것이다. 이런 예배의 변화는 직분의 변화도 동시에 가져오게 되었다. 칼빈은 목사는 무엇보다도 양을 먹이는 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 하는 푸주간의 주인이 아니라 주정하였 다.11) 이 점에서 직분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삼키는 봉사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직분이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맡겨진 일 때문이며, 단순히 그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직분의 필요성

칼빈은 모든 신자가 성도이고, 성직자이고, 사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서 모든 신자가 목사나 장로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들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의 만인제사 장설을 만인목사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것이다. 교회 안에는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공적 직무가 있는데, 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성직자(clergy)라고 부른다.12) 이런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는 다른 일반 사회들과 같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직분론이 신학 논쟁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가톨릭과 개혁 진영이 주로 논쟁을 벌인 주제들은 이신칭의, 예정

인다. 하지만 이 구분은 기능적 구분으로 로마 가톨릭적인 계급적 구분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칼빈은 베르타가 전 교회를 성직자(개혁한들만에는 '말기운 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직자라는 말을 쓰면서도 좀 더 나은 용어가 있기를 희망한다. Cf. *Inst.*, IV, xiv, 9 그리고 IV, xii, 1.

11) Calvin, *Sermons on Timothy and Titus*, p. 513.

12) *Inst.*, IV, xii, 1.

론, 화해설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점점 진행되면서 두 교회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게 되고 더 이상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직분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해가 필수적인 수밖에 없었다. 우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직분에 대한 이해부터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옛 로마교의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임직을 받았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았을 때,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다. 그뿐 아니라 신구교간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사제나 주교들이 하루아침에 개신교 진영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당연히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큰 문제였고, 칼빈은 스위스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13) 신교와 구교는 직분에 대하여 큰 견해 차이가 있었고, 그 견해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준은 성경이었다. 기독교강요는 직분에 관하여 성경에 가장 충실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목회자들이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14)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직분을 다루면서 먼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룬다. 이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두 진영과 싸우고 있다. 하나는 직분을 너무 지나치게 숭상하였고, 다른 하나는 직분을 아예 무시하였다. 전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으로, 직분을 성직(holy order)으로 보고 성례의 변역에 올려 놓았다. 반면, 후자는 신령주의자라고 불리는 방종파(Libertines)의 입장으로15) 오직 영적인 통치만을 인정하고 직분은 근본적으

13) Calvin,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 (Westminster/John Knox Press, Louisville, 1991), pp. 57-58.

14) 기독교강요의 주 독자는 이미 성경, 교부들, 로마교 전통, 공의회 심지어 그리스와 로마 저술가들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가진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이미 교육을 받거나 임직을 받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다. 기독교강요의 독자들에게 대한 문제에 관하여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Randall C. Zae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e of His Writings and Thought* (Baker Academics: Grand Rapids, 2006), p. 88.

15) 직분론에서 칼빈이 방신자(fanatics) 혹은 신령주의자(spiritualists)라고 부르는 이들

로 인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로마교회는 직분은 그야말로 교회를 창출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고,¹⁶⁾ 신령주의자들은 제도적 직분은 교회에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두 극단에 맞서서 칼빈은 성경에 근거한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하려고 하였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 특별히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직분은 결코 인간이 고인해 낸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직분은 그 자체가 신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숭상하여야 할 상태도 아니다. 직분의 중요성에 관한 한, 칼빈의 주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입장이었지만, 신령주의자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칼빈의 적이었다. 신령주의자들이 맞서서 직분의 중요성을 칼빈이 미리 못 박아 둔 것은 로마교회의 거짓 직분에 대한 비판이 직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직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꼭 인간의 직분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직접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릴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교회에 전달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므로 그러한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은 제세해파의 한 부분로 보다 복음적인 주류 제세해파와는 구분된다. 츠빙글리는 이 두 그룹을 싸잡아서 비판하였지만, 칼빈은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enjamin Wirt Farley, ed.,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Baker Academics: Grand Rapids, 1982), pp. 25-26.

16) 심지어 로마교는 주교가 다른 주교를 승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교회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있는 곳에 직분이 있지만, 로마교에 있어서는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Cf. *Inst.* IV.ii.3.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닮추셔서 인간의 능력에 맞추셔야만 하였다.¹⁷⁾ 직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자기 겸비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직분자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뜻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얼마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성전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 반말이 이념을 증명하신다.¹⁸⁾

둘째, 하나님은 직분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겸손함을 훈련시키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 시대와 같이 하늘에서 뇌성과 같은 소리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면, 누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사람이 말한다면 쉽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이 후자를 택하신 것은 그분의 말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¹⁹⁾

셋째, 칼빈에 따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분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서 필요하다.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 교회의 다양한 직분은 교회의 일체성에 방해를 준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직분의 다양함이 교회의 일체성을 더욱 고양시킨다고 말한다. 무엇보

17) *Inst.* IV.1.1. 하나님의 적응(accommodation)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직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신적 적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n Balserek, *Divinity Compromised: A Study of Divine Accommodation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Dortrecht: Springer, 2006), 특히 제2장. 또한 다음의 논문도 참고하라. Michael Finken, "John Calvin's Concept of Divine Accommodation: A Hermeneutical Corrective," *Churchman* 118 (2004): 325-358.

18) *Inst.* IV.iii.1.

19) *Inst.* IV.iii.1.

다도 칼빈은 한 사람이 슈퍼맨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인간의 연약성과 그로 인한 부족함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필요함과 동시에 직분들 사이의 연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²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으로, 이 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진다. 그러나 이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그리스도]는 더 이상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봉사를 사용하여서 일종의 대리인으로 삼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신다. 그러나 자신의 권한이나 영예를 그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뿐이다 — 마치 정인이 연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²¹⁾

칼빈이 비유 한 것같이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종의 도구이다. 그리고 이 도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edification) 위한 매우 유용한 것이다. 직분자가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도구가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듯이, 직분자도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직분자는 귀하게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칼빈이 지적하였듯이, 직분자는 항상 도구로 남아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자리와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로마교회의 거짓된 직분,

특히 교황직이 배격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에 근거한 4중 직분: 목사, 교수, 장로, 집사

1. 항존직과 특정직

다른 모든 교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직분에 있어서도 칼빈은 철저하게 '오직 성경의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모든 직분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어야 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직분은 배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직분을 다루는 기독교강요의 상당 부분이 교황제의 거짓을 폭로하는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비판에 할애되었다.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어야 하는지라는 문제보다, 교회에 어떤 종류의 직분이 있어야 하는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교회에는 수많은 직분들이 있었다. 공교회의 가시적 머리라고 자칭하는 교황이 존재하고 있었고, 교황 밑으로는 추기경, 그 밑에는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가 고위 성직자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주교 밑에는 사제와 부제가 그를 모좌하고 있어서 교회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의 계급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교황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수도원 안에도 수많은 수도사들이 계급 체계를 구성하여 기존 교회의 성직자들과 경쟁하고 있었다.

로마 교회는 기본적으로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루터파는 명시적으로 성경에 반하는 교황 직분에는 반대하였지만, 성경과 명시적으로 상충하지 않는 직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루터는 주교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지만, 주교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루터에게 있어서, 주교는 근본적으로 목사와 같으며, 다른 점은 다른 목사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²²⁾

20) Calvin, *Commentary of Romans*, p. 459.

21) *Ibid.*, IV, iii, 1.

이와 반대로, 칼빈은 교회의 직분은 오직 성경이 명시적으로 정한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직분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구절에 대하여 세밀한 해석학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직분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직분이냐고 어떤 직분이 헌시적 직분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사도직이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 시대에 한정된 직분인가 아니면, 그들의 후계자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직분인가?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사도의 직분이 교회의 본질적인 직분이고, 이 직분은 주교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으며 이 직분이 없으면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본다.²³⁾ 반면, 칼빈은 사도의 직분이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도직이란 교회가 창립될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께서 제정한 직분이기 때문이다.²⁴⁾

선지자는 사도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장직이었다. 바울 서신에 언급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직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 온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설명으로 만족한다. 선지자는

22) Bernhard Lohse, *Martin Luther's Theology: His Historic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p. 296.

23) 물론 가톨릭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12사도들과 주교들을 완전히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다(특히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고 계시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비록 성공회는 개인 교이지만, 주교직을 교회의 본질 중의 하나로 보다는 경에서 로마교의 입장과 일치한다. 개세례파의 경우도 사도직을 교회의 본질적인 직분으로 보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완전히 사라진 직분으로 보지는 않았다.

24) *Inst.* IV.iii.4.

기본적으로 예언을 하는 직분인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그 당시 예언(prophecy)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predic)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와 그의 주석에서 예언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보았다.²⁵⁾ 사도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사도는 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시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²⁶⁾ 전도자(evangelist): 복음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언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칼빈은 누가, 디모데, 디도와 같이 사도들보다 아래에 위치한 특별한 직분으로 보았다.

2. 목사와 교수

칼빈은 신약 시대의 특장직과 오늘날 교회의 향존직²⁷⁾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에베소에는 직분과 관련하여 모두 다섯 가지(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그리고 교수)가 언급되어 있는데,²⁸⁾ 칼빈에게서 특장직인 것은 향존직인 목사와 교수를 서로 다른 직분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이 있어서 칼빈은 이 둘을

25)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p. 460. "Prophecy at this day in the Christian Church is hardly anything else than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and the peculiar faculty of explaining it."

26) *Inst.* IV.iii.4

27) 향존직을 종신직과 혼동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향존직은 문자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직이라는 뜻으로 반대말은 특장 시기에만 존재하는 비향존직(extraordinary) 혹은 특장직이라고 할 수 있다. 종신직의 반대말은 임기직이며, 향존직/특장직의 구분은 직분 그 자체의 존재에 관한 구분이요, 종신직/임기직은 그 직분을 어떻게 된 사람의 임기의 길이에 관한 구분이다.

28) "가르치는 자(ὁ διδάσκων)"라는 용어가 한글개역성경에서는 '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용어가 주일학교 교사로 이해되어 교사 현신 예배의 단골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칼빈에게 있어서 (물론 개회 신회의 전통에 있어서) 이 교사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를 가리킨다.

하나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과 결별하였다.²⁹⁾ 전통적 해석에 있어서 목사와 교수를 별개의 직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목사이자 교수”라고 보는 이유는 신약 원문이 “어떤 이들에게는 목사요, 어떤 이들에게는 교수로”라고 따로 구분하여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수로”라고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 역시 이런 문법적인 사항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고, 목사 역시 가르치는 자, 즉 교수라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교는 할 수 없으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목사와 구별된 교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³⁰⁾ 핵심을 정리하면, 교수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목사와 구분되며, 성경 해석에 있어서 남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 교리로부터 바른 교리를 사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칼빈은 이 일을 신학교의 교수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자신이 유능한 신학 교수였다.

칼빈의 목사/교수의 구분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규범(The Form of Church-Government)은 칼빈과 같이 4종직을 마르고 있지만, 교수는 목사와 같이 말씀의 봉사자이고 성례를 주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교수는 성경 해석이나 바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을 설득함에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 규범이 교수직의 유래를 구약의 선지자 학파들과 신약의 기말리엘 학파와 같은 모임에서 찾는다는 것이다.³¹⁾

29) 어거스틴, 크리스스툼,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등 대부분의 지명한 교부들이 이런 해석을 취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입장이 대다수의 입장이기도 하다.

30)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p. 280.

31) *The Confession of Faith: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 with the Scripture Proofs at Large* (Inverness: Free Presbyterian Publications, 1983; reprint), p. 402.

칼빈에게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를 특정직으로 목사의 교사를 항존직으로 구분한 다음에 사도와 전도자를 한 쌍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약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직분에 있어서 어떤 호응이 이루어지는데, 목사는 사도(전도자)와 호응을 이루고, 교수는 선지자와 호응을 이룬다.³²⁾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신약시대(특정직)		오늘날(항존직)
사도/전도자	→	목사
선지자	→	교수

사도와 목사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목사도 보증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도는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고,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교회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항존직과 임시직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직분은 아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목사와 교사가 한 일은 가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고 그 둘 사이에 넘지 못할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목사를 사도라고 부르기조차 않는다.³³⁾ 로마 가톨릭교회가 소수의 고위 성직자인 주교만을 사도직의 계승자로 본 반면에, 칼빈은 문자적 의미에서 사도직의 계승은 부정하면서도 각 교회의 모든 목사를 기능적인 면에서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32) *Inst.* IV, iii, 5.

33) *Inst.* IV, iii, 5. 칼빈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도 신약시대에 제한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로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칼빈은 루터를 사도라 부르기도 하였다.

목사의 직분을 귀하게 보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3. 장로

한국어로 '장로'에 해당하는 헬리어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presbyteros*)로 '나이가 많은 자, 즉 노인이라는 뜻이다. 칼빈은 이 단어가 나이가 아니라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이는 참조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34)

성경적 토대 위에서 직분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칼빈이 이를 또 하나의 결과는 목사와 구분된 다스리는 자, 즉 장로직을 확보한 것이었다. 35) 이 때문에 두 장로의 구분이 칼빈의 고유한 업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로와 목사는 성경에서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는 개념에,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둘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전에 장로(*presbyter*)란 목사를 뜻하는 다른 말인 사제(*priest*)로 간주되었다. 장로는 평신도가 아니라 성직자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설교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인 목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설교를 하지 않았고, 할 능력도 없었다. 그이별로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일이나 제의적인 일만 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성경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거나 하는 장로로 분명히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딤후전 5:17). 따라서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좋은 의미에서 장로)의 구분은 칼빈이 새로 생각해 낸 별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구분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칼빈 이전의 전통은 장로(설교하지 않는 장로)를 사제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34) 장로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칼빈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이다. 현실적으로 30대가 목사(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가 될 수 있다면, 30대가 다스리거나 하는 장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35)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에 따르면에도, 장로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다스리는 자(*governor*)이고 장로는 이들을 지칭하는 통상적인 명칭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장로(성직자인 장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칼빈의 독특성은 성직자가 아닌 장로, 즉 자기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장로직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36)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평신도에게 개방한 것은 직분에 있어서 칼빈이 개혁교회에 끼친 영구적인 공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칼빈 이전에는 오직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기로 헌신한 사람들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었으나, 칼빈 이후에는 성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칼빈이 "새로" 고인해 낸 장로는 목사와 연합하여 당회(*consistory*)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제네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였다. 37)

3. 집사

집사는 장로와 더불어 평신도가 교회에서 누리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직분이다. 어원상, 장로가 다스리는 자라면, 집사는 섬기는 자(*diakos*)이다. 어떤 면에서 모든 신자가 섬기는 자이고, 모든 직분자 역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섬기는 자이지만, 집사는 특별한 교회에서 공적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 칼빈은 이 집사직을 성경적 직분으로 개혁하려고 하였고,

36) 칼빈의 목사와 장로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엘시 매키가 쓴 책은 여전히 최고의 권위서이다. *Elsie Anne McKe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The Role of Exegetical History in Illuminating John Calvin's Theology* (Droz: Geneva, 1988).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 저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 *Elsie Anne McKee, "Calvin's Teaching on the Elder," in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Westminster/John Knox Press: Louisville, 1990), pp. 147-155. 매키의 저서는 장로와 목사의 구분에 대한 성경 해석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7) 제네바 교회에서 당회는 한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연합으로 구성되는 모임이 아니라, 제네바 교회의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 중에 선출된 자들이 모여서 구성되었다. 이것은 제네바 도시가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제네바 당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obert M.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1996), 서론 부분.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온 직분이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나 루터파도 이 직분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가톨릭교회의 경우 이 직분은 단지 사제를 위해 봉사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고, 루터파에서도 유명무실한 직분이 되었다. 루터교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의 봉사자, 즉 목사만이 유일한 직분으로 간주되었다. 집사 직분에 있어서 칼빈이 가장 큰 공헌을 한 점은 집사가 섬기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칼빈은 집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그들 위에 있는 사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성경과 초대교회의 증거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집사는 가난한 자를 위한 청지기(the steward of the poor)였으며 사제가 되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 사제와는 구분되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하는 독립된 직분이었다.³⁸⁾ 칼빈이 세운 이런 집사들로 인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종교적 박해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집사 직분에 있어서 칼빈의 또 하나의 독특성은 집사를 두 종류로 구분한 것인데, 이것 역시 그 자신의 성경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 12:7 이하에는 교회의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 집사 직분과 관련된 것은 “주는 자”와 “지배를 베푸는 자”³⁹⁾이다. 칼빈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두 종류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는 자는 자기 재산을 주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구제금을 배분하는 집사로 보고, 지배를 베푸는 자는 직접 환자나 가난한 자를 방문하여 돌보는 집사로 해석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에게 권면하듯이, 전지에게 있어서는 공금을 다루기 때문에 정직함이 요구되고, 후자의 직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⁴⁰⁾

두 종류의 집사에 대한 칼빈의 이론은 그 당시 제네바 시에서 일어나고

38) *Ibid.*, IV, v. 15.

39) 개혁개정판은 “구제하는 자”와 “공금을 베푸는 자”로 번역되어 있다.

40)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 463.

있었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 진영에 가담한 이후 제네바 시에는 더 이상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자선 기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국가라도 해야 할 일이다. 제네바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기관이 종합병원(H pital-G n ral)이었다.⁴¹⁾ 이 기관은 이름만 종합병원이었지, 병원이자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호 단체와 같은 기관이었다. 이 기관에는 두 종류의 봉사자가 있었는데, 오스피탈리에(hospitalier)라고 불리는 관리와 프로큐러(procureur)라고 불리는 관리가 있었다. 전자는 그 기관의 행정을 맡아서 관리를 하였고, 후자는 직접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였다. 알핏 보더라도, 칼빈이 말하는 두 종류의 집사직과 제네바 시의 구조 시스템이 서로 평행을 이루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자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칼빈이 제네바 시의 제도를 모방하였다고 보고, 따라서 그의 성경 해석을 부차적인 것으로 본 반면, 어떤 이들은 칼빈의 성경 해석의 우위성을 강조하여 칼빈에 대한 제네바 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하였다.⁴²⁾ 그러나 쾰턴 박사가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집사에 대한 칼빈의 이해가 순전히 성경에만 의존하였다고 본다든지, 혹은 칼빈이 전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호 작용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칼빈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고, 그의 성경 해석은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⁴³⁾

41) Robert M. Kingdon, “The Deacons of the Reformed Church in Calvin’s Geneva,” in ed. Richard Gamble, *Calvin’s Ecclesiology: Sacraments and Deacons*,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10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p. 256.

42) 대표적으로 두 학자가 대립하고 있다. 1) Jeannine Olson, “Calvin and the Diaconate and ‘The Bourse Fran aise: Deacons and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in ed. Richard Gamble, *Calvin’s Ecclesiology*, pp. 242–254; 2)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 D. Dissertation, 1982).

직분자의 선출: 교회 회원의 동의

칼빈에게 있어서 직분의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는 봉사이다.⁴⁴⁾ 이것은 칼빈의 교회론 전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빈은 교회를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정의하였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듯이 교회도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신자들을 낳고 보호하고 양육한다. 어머니라는 신명찬 이미지를 통하여 영적인 돌봄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 교회는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을 돌보는 일을 수행한다. 돌봄이 직분자에게 본질적인 면이기 때문에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역자는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다.

직분을 이와 같이 귀하게 본다면,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자격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칼빈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점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벗어났다. 왜냐하면 로마교회는 직분자들에게 성경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동한히 하면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목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로마교회는 이 점을 거의 무시하였다. 반면 독신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선택 사항인데, 로마교회는 이것을 모든 성직자들에게 예외 없이 요구하였다.⁴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다면, 교회는 신자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하며, 그것을 금하는 것은 전혀 합법적이지 않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⁴⁶⁾

43) Robert M. Kingdon,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and Theological in Origin?' in ed. Richard Gamble, *Calvin's Ecclesiology*, pp. 265-278.

44) 칼빈에게 있어서 직분과 봉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황대우, 『칼빈과 개혁주의』 (서울: 도서출판 칼뱅, 2009), 특히 제8장 '칼빈의 직분론: 교회 건설을 위한 봉사와 질서를 참조하라.

45) *Inst.*, IV, iv, 10.

46) *Inst.*, IV, xii, 23.

목사의 임직과 관련하여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교회 회원의 동의였다. 칼빈은 심지어 신약교회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고 본다. 결론으로 보기에, 마니체와 바울이 교인들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말씀의 사역자로 임명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교회 회원들의 동의 없이 직분에 임명된 것은 아니라고 칼빈은 주장한다.⁴⁷⁾ 회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칼빈은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걷는다. 제체레파의 경우에 직분자들의 선출은 순전히 교회 회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반대로 로마교회에 있어서, 임직은 사도권을 계승한 주교만이 가지는 교유의 권한이었으며, 주교 혼자 자신의 주교좌 관할 아래에 있는 사제들을 임직할 수 있었다. 사실 이것은 주교가 지닌 막대한 권한이었으며, 중세 기간 동안 그 유명한 사임권 투쟁의 궁극적 원인이기도 하였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 세속군주는 그와 같이 막대한 권한이었으며, 중세를 순전히 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교황에게 맡겨 둘 수가 없었다. 주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제를 임명하여, 지교회에 피송할 뿐 지교회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로마교회의 비성경적 관습에 맞서서, 칼빈은 목사를 선출할 수 있는 교인들의 권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칼빈이 목사의 선출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완전한 민주주의적 교회 정치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목사의 선출이 전적으로 공동체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민주적 교회 정치가 가지는 폐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교회 회원들이 군중 심리나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하려고 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이 목회자 선출권을 교위 성직자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폐단 때문에 교회 회원들의 동의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직분자의 선출에 있어서 칼빈이 원하였던 바는 성직자와

47) Calvin, *Commentary upon the Acts of the Apostles*, p. 500.

성도의 협력이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성직자가 자격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교중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첫째 방법과는 정 반대로 교중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성직자들이 선출하는 방법이다.⁴⁸⁾ 방법과 관계없이, 칼빈이 주장한 핵심은 교인의 의사가 임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누가 직분자를 임명할 수 있는가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로마교회처럼 주교 한 개인에 의한 임직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들을 세우라고 명하였다(딤후 1:5). 이 구절에 근거하여 로마교는 사도권을 계승 받은 주교가 하급 성직자들을 임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피상적이고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로마교의 입장이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인다. 칼빈 역시 바울이나 디모데가 장로들을 임직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임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자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장로들 세웠는가 아니면 교회 회원들의 추천과 동의의 안에서 임직식을 주관하였는가? 칼빈이 반대하는 바는 어떤 특정 목사의 권위나 탁월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들에 대하여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었다.⁴⁹⁾ 그는 무엇보다도 어떤 한 개인이 (즉, 주교와 같은 주교와 성직자) 교회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사로 세우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직분과 소명

소명이 교회의 직분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교회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다. 칼빈은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합법적인 목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⁵⁰⁾ 그 강조한 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직분자로 부르시느냐 하는 점이다. 칼빈은 소명을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⁵¹⁾ 이 둘은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내적 소명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이 소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인식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에 우선하며, 전자가 없다면 후지도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⁵²⁾ 이 소명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소명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의 선한 증거”⁵³⁾라고 정의하는 것에 만족하며, 칼빈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 소명은 사역자가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 내적 소명이 없이는 직분자, 특히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적 소명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그로 하여금 성직대매를 통하여 돈이나 권력으로 직분을 사들인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게 하였다. 로마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서품상시는 동일

50) Calvin, *Commentary upon the Acts of Apostles*, (13:2), p. 502.

51) 이종 소명에 대한 명백한 언급은 딤후 23:2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적 소명은 교회적(eclesiastical) 소명으로 칼빈은 이해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직분에 대한 소명은 구원의 사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소명과 구분된다. 둘 다 내적/외적 소명을 말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52) Calvin, *Commentaries on Jeremiah*, (23:21), p. 179.

53) *Inst.* IV, iii, 11.

48) *Inst.* IV, iv, 13.

49)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딤후사 1:5), 290.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임직되었다는 것이지, 임직된 자가 소명도 없이 돈으로 주고 샀는지의 여부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었다.⁵⁴⁾

칼빈은 내적 소명만을 직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팽신자들(fanatics)과 신령주의자들(spiritualists)을 비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런 부르심만 있으면 되고, 그 직분에 대한 자격, 특히 지적인 부분에 대한 자질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은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직분과 은사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았다고 강조한다. 바울은 두 군데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직분과 은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은사는 직분 앞에 오며, 직분이 수행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⁵⁵⁾ 쉽게 표현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그를 목사로 임직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내적 소명은 하나님의 비밀스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판단할 수 없으나, 직분자가 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교회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 은사에 근거해서 그가 직분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한다. 이 외적 소명은 교회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확인된다. 따라서 외적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검증이다. 칼빈은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자의 자질에 근거하여 직분자가 될 사람은 간단히 요약하면 “바른 교리와 거룩한 삶(man of sound doctrine and of holy life)”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것은 목사뿐 아니라 장로와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⁵⁶⁾

교회의 직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이 검증은 소수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주교에 대한 검증은 교황이나 주교 보좌관(chapters)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사제에 대한 검증과 임명은 주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좌우되었다. 그 결과 10대 청소년이 주교 자리에 임명되기도 하고, 기본 문법도 모르는 사람이 사제로 임명되었다.⁵⁷⁾ 후보자에 대한 로마교 주교들의 검증은 그야말로 형식적이었고, 이것은 직분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칼빈에 있어서 이런 직분의 타락의 궁극적 원인은 성직자에 대한 검증, 즉 외적 소명에 대한 무관심에 있었다. 이것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성직자에 대한 검증이 교회 회원 전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런 생각은 혁명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계급적 시교방식으로는 평신도가 성직자를 검증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칼빈은 말로만 직분자의 검증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켰다. 일단 목사 후보생은 시의회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도덕적인 면에서 검증을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교회 회중 전체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했다. 더 나아가 이미 목사로 임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목사 모임(오늘날 시찰회와 같은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석을 해야 했으며, 그 모임에서 중요한 교리에 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했다.⁵⁸⁾ 칼빈에게 있어서 외적 소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신행(言行)을 통해 계속 검증 받아야 할 지속적인 것이었다.

54) Calvin, *The True Method of Giving Peace to Christendom and Reforming the Church* in ed.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vol. 3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33; reprint), p. 294.

55) Calvin, *John, Commentary on Corinthians*, p. 414.

56) *Instit.* IV, iii, 12.

57) *Instit.* IV, v, 1 그리고 5.

58)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III, pp. 477-8.

결론: 칼빈이 오늘날 개혁교회에 던지는 몇 가지 도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직분을 세움으로써 바른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만드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인간의 봉사하는 모든 신자들을 한 몸으로 묶는 가장 중요한 힘줄(sinew)이다”⁵⁹⁾고 말하였다. 직분은 바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물론, 직분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로와 집사를 교회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종류의 집사직에 대한 그의 견해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성경적 원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직분은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이 계몽하는 직분에만 만족하여야 한다. 로마교회는 교회의 현실적 필요성과 오래된 관습 때문에 비성경적인 직분을 남발하고 있었다. 칼빈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목사, 교수, 장로, 집사의 4가지 직분에만 만족하였다. 하지만 칼빈의 신학을 이어 받았다고 하는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직분들이 세분화되고 있고(더 위험하게는 계급화되어 가고 있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수많은 직분이 양산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이 말한 성경적 가르침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직분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단순성이며, 이 단순성을 오늘날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직분을 교회에서 양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적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목사가 다 평등하다면 교회는 무질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통괄할 수 있는 직분,

즉 교황이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칼빈은 에베소서 4:11-12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만약 그와 같은 직분이 꼭 있어야 했지만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리석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황이라는 직분이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다.⁶⁰⁾

둘째, 칼빈이 이론 또 하나의 큰 업적은 각 직분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목사는 설교하는 일, 교수는 가르치는 일, 장로는 다스리는 일,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한다. 한 직분이 다른 직분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 칼빈이 강조하였듯이, 특히 한국교회의 관련하여, 집사는 장로나 목사가 되기 위하여 거쳐 가야 하는 과정이 아니다. 각 직분자는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종이다. 물론 이런 정치 체계를 교회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잘못 적용될 경우, 로마 가톨릭교회가 개혁교회를 항상 기 미반했듯이, 무질서와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패단은 말씀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무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직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개혁교회가 할 일이다.

셋째, 소명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 소명이 바르게 실천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 직분이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외적 소명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보았다. 칼빈이 반대하였던 것 중의 하나는 직분자가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었다. 이것에 반대하여, 칼빈은 모든 신자들의 합의에 의한 인준을 강조하였다. 이 합의는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소명에 대한 검증이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에서 일부 직분자들이 교인들의 동의 없이 담임목사나 당회의 판단으로 세워지거나 동의가 있더라도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59) *Inst.*, IV, iii, 2.

60)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istles*, (셀 4:11), p. 280.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직분론에서 있어서 칼빈이 가장 반대했던 부분이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혁교회는 교리적인 면에서 바른 교회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⁶¹⁾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칼빈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면, 그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제정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이것은 귀한 자나 천한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다: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이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이 일은 시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찾아내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이 일은 시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보다 지체롭게 피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와 같은 교만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물론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신적인 영향력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이다.⁶²⁾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바르게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나 능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하여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을 잘 살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칼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며, 그의 직분론에서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61) 이 명제에 근거하여 새로운 신앙교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다.

62)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영 4:13), p. 282.

칼빈 신학에서 양자 교리의 위치

조진모

[역사신학 · 전임강사]

들이기는 글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1509~1564)은 양자 교리를 중시하였는가? 기독교 강요는 그의 신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귀한 자료다.¹⁾

1)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 1536년 라틴어 초판 이후로 1539, 1543, 1550년에 개정되었으며, 1559년에 최종판이 출판되었다. 모두가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이하 *CO*로 표기) 1, II에 수록되어 있다. 1536년판 인용에는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를 참조한다. 또한 1550년판 인용에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을 참조한다. 대부분의 칼빈 학자들이 기독교 강요 초판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1539년판부터는 목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신학의 근본적 개념을 정리하였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William S. Barker,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Institutes* as a Work in Theology,"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eds.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8), 8-10을 참고하라.